2월15일(월)/사도행전9:36~43

제목: 도량이 넓어지는 베드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렸다. 시체를 이미 씻은 걸로 봐서 장례절차를 다 끝낸 상태였던 것 같다(36~37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일어나라고 명하자 그녀는 바로 일어났다(40절). 베드로가 욥바에서 거둔 가장 큰 업적은 이것뿐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가 인간적인 편견을 떨쳐버리고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였다(43절).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다. 이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다. 미쉬나에 의하면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이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두장이는 아무데나 거주할 수 없었고 그가 사는 곳은 도시의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법적으로 한정되었다. 그런 무두장이 집을 베드로는 일부러 찾아 가서 함께 거했다.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것은 모든 편견에 대한 승리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더 큰 환상과 비젼을 보고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더 넓고 더 도량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편견이 많은 자는 옹졸한 자이다. 옹졸한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2월16일(화)/사도행전10:1~8

제목: 외모로 전도를 결정하지 마세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의 군대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다가 소요가 일어났을 때 소요를 진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이달리야 대라는 군대의 장교였다(1절). 그러나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었다. 그의 신앙은 사람들을 구제와 기도하는 삶으로 표현되었다(2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는 얼른 사람을 욥바로 보내었다(5~8절). 고넬료는 유대주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로마의 사상과 통치 개념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구제와 기도로 표현할 만 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가난한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드릴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를 받아드렸고 유대주의 사상이 몸에 밴 사람이 되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전도가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선입견만 가지고 저 사람이 전도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될 때 이 고넬료를 떠올리면 한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다.

2월17일(수)/사도행전10:9~16

제목: 모자이크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다(10절). 그 환상은 그릇에 온갖 종료의 동물들이 담겨져 있는 환상이었다(11~12절). 그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혐오감을 갖는 것들이었다. 그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어라”(13절)고 했다. 베드로는 거의 반발적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14절)고 대답했다. 그 때에 두 번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 하셨다(15절). 이 환상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를 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야만 했다.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욥바에서는 욥바대로 가이사랴에서는 가이사랴대로 각기 일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작은 조각의 그림들을 모으고 계신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조각 조각의 그림을 모자이크해서 완성된 그림을 만드신다. 이 완성된 그림을 받는 날이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다.

2월18일(목)/사도행전10:17~23

제목: 담이 허물어지고 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17~22절).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제9시 즉 오후3시였다(3절).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제6시 즉, 정오였다(9절).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적 간격은 21시간이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로 약 하룻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19절) 도착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방인 하인들을 집으로 받아드렸다(23절). 시간적으로 따져도 하나님의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가 그날 밤에 함께 유했다. 모든 장벽과 편견이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과도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나 드디어 복음 안에서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초기의 기독교는 장해를 헐어버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 때 뿐 아니라 기독교는 그럴 필요가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의 경계를 헐고 서로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월19일(금)/사도행전10:24~33

제목: 말씀의 대언자를 존중합시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24~26절).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방인 집에 들어온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말할 뿐 이었다(28절). 그러나 고넬료는 나흘 전에 본 환상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듣기 위하여 당신을 청했다고 했다(30~33절).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33절)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베드로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당신을 청했다는 것이다. 고넬료는 사람을 경외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위대한 베드로라 해도 그의 위대함은 그 자신에 기인하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도를 존중하였다. 고넬료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33절)라고 고백하였다. 비록 자신은 사람 앞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믿었다. 그리고 그 대언자 앞에 선 것을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여겼다. 우리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대언자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언자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